

마데테스



표어 : 믿음이 기쁨되고 용서가 감사되는 교회

은석교회는



교회를 사회적, 세속적
인간관계의 연장이나 또
하나의 세속적 모임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자임을 믿으며 서로에게
상처받은 관계를 끊임없이
용서 안에서 회복시켜
가기를 노련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항복
선언을 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임을 믿기에
서로 이기고자 하지
않습니다.

내 소리

신 윤 식

사람들 속에서
사람으로 사는 것이
굽이굽이 고개를 넘듯 어려운 것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여
쉬이 동요하기 때문이다.

들리는 소리 중에
어느 소리가 내 소리인지
귀를 열어야 할 때 닫고
닫아야 할 때 여니
나를 찾고 볼 수 있는
내 소리를 듣지 못한다.

사람들의 말에
웃고 울고 아파하고 분노하니
말의 덫에 걸려 넘어지는
어리석은 것이 사람이라다.

세상은 소리로 가득하지만
바람처럼 지나는
헛되고 헛된 사람들의 말에
나를 잃을 수도 있으니
내 소리, 나를 찾아가는
참된 소리를 들어야 하리라.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9-832-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1.4.24

발행호수 제19권 17호

사람은 알려고 하기 보다는 믿고 싶어 하는 경향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은 복잡하고 어렵다는 느낌으로 다가오지만 믿는 것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는 성경을 깊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고 목사가 가르치는 것을

믿으면 된다' 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목사가 할 일이고 평신도는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믿으면 복 받고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아적이고 맹목적인 종교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병으로 죽은 남편의 시신을 6년간 보관해 온 사람의 이야기가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옥황상제를 모시는 사이비 집단에 심취한 친정엄마와 이모가 '죽은 남편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 그대로 두면 부활한다' 고 한 말을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죽은 남편의 시신을 6년간 보관한 여인의 관심은 친정엄마와 이모가 믿는다는 옥황상제가 아니라 엄마와 이모 말대로 하면 남편이 살아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현대 교인들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앞서 말한 대로 현대 교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복 주시는 분이요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신' 이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만 잘해주시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원하는 풍요로움과 평안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복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나 엄마의 말만 믿고 죽은 남편의 시신을 방안에 방치해온 여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왜곡된 신앙에서는 '신앙이 내 삶에 어떻게 연결이 되며,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에 대한

주일오전설교

골 3:1-4

감추어진 부활생명

관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착하게 살고 복 받고 천국 가면 교회를 다니고 목사의 말을 믿은 모든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부활에 대해서도 같은 성향을 드러냅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자가 모두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신을 방치 않은 것만 다를 뿐 부활이라는 말만 믿고 언젠가는 부활한다는 막연한 생각만을 갖고 있는 것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부활을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한 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현대 교인들에게 부활 신앙은 이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 신앙은 우리의 삶과 연결해서 드러납니다. 이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만약 이 내용을 '신자는 세상의 것 말고 위의 것, 즉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는 의미로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본문의 겉만 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의미를 좀 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 배경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2장에 보면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이 세상적이고 종교적인 여러 가지 습관에 매어 있음을 지적합니다. 8절에 보면 철학이 그것이었고 11절에 보면 할례가 그것입니다. 또한 16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의 문제로 서로 비난하는 다툼이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는 규례에 묶여 있기도 했고, 그러한 규례에 순종하는 것이 곧 겸손과 경건으로 이어지는 신앙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그러한 것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님을 지적합니다. 신자는 더 이상 종교적인 그 어떤 규범에도 매인 존재가 아니고, 또 어떤 규범으로도 신자를 죄인으로 정죄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믿는 십자가는 승리의 증거입니다. 승리의 증거물인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신자는 이미 죄에서 해방된 존재이고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무엇으로도 정죄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는 먹고 마시는 문제,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문제로 서로를 비난했고 다투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기신 십자가의 세계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겸손해지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 종교적 규범과 질서에 구속되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현대 교회의 실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종교적인 규범과 질서에 구속되어 살면 외형적으로는 신앙이 있고 거룩하고 겸손한 자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이것으로도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골 2:23).

육체 따르는 것이란 육체적 욕망을 의미합니다. 사도가 말하는 육체적 욕망은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욕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성취함으로써 좀 더 높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입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욕망이 종교적 규범과 질서에 순응하여 자의적인 거룩과 겸손을 이룬다고 해도 제어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겸손과 거룩을 이루기 위해 애쓰게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승리하신 증거인 십자가를 믿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사도가 본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사도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고 말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신자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겸손과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 종교적 규범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은 자에게 따로 나타내야 할 거룩은 없습니다. 주와 함께 죽은 신자는 그리스도안에 있는 것으로 거룩된 자로 여김 받는 세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도 역시 신자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위의 것, 위의 세상이란 어떤 것일까요? 위의 세상을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로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위의 세상, 즉 천국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실제적 장면으로 상상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위의 세상과 지금 현재가 연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고 말하지만, 이것을 이 세상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천국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의미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이 세상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뿐더러, 천국이 어떤 것인지 천구에 대해 알지 못하는 우리로서 천국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그저 막연한 상상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세상은 위의 것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많은 사람은 세상을 땅의 것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의 것은 하늘, 즉 천국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땅의 것과 위의 것을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과 신자가 장차 가게 될 천국으로 구분하여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음을 믿는 신앙이 현재의 삶에 연결되어 나타나지 못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위의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한 우편은 단지 좌우편이라는 방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우편은 그 주체와 동일한 권한과 능력이 부여된 자리로 여겨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권한과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분으로 존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한과 능력은 다스림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는 다스리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위의 것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위의 것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땅의 것은 예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신자가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사도는 3절에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고 말합니다.

신자는 세상에서는 죽은 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신자의 본질입니다. 세상에서 죽은 자인 신자에게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지 자신이 지켜야 할 가치 있는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에는 고상한 지식이나 종교적 규범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경건이나 거룩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세상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의 세계에서는 전혀 가치있는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에 대해 죽은 대신 다른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의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었기에 이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입니다. 감추어져 보이지 않는 생명을 드러내는 자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며 현재입니다. 이 생명이 고상한 철학적 지식과 종교적 규범을 지키면서 뉘를 금하고 행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서로를 비난하게 하고 다투었던 문제들은 결국 아무 유익도 없는 헛된 것이었음을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실체이시고 능력이십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4절)**라는 말대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남으로써 감추어졌던 생명의 신비가 생생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신자는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감추어진 생명의 신비가 드러날 그 때를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자의적인 겸손과 거룩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문제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다룰 일도 없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신자에게 감추어진 생명의 흔적입니다. 자기의 존재 가치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부활의 생명이 마음을 둡니다.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예 수님께서 말씀하 시기를 세상에 육신으로 계시는 것보다 떠나가시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어서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계속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면서 바르게 고쳐 가시는 것이 더 유익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가시고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함께 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 책망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실 때는 제자들이 그러한 책망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9-11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으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하시고 어 디론가 떠나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해도 보혜사를 주셔서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는 하셨습니다만 보혜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그 말을 믿고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그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고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버리신다면 제자들의 희망과 기대는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이 희망 둘 곳이 없게 됩니다. 때문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근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오후설교

요 16:7-11

성령의 역할

(성령14강 4.10일 설교)

더군다나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떠나시면 제자들은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받을 것임을 예고하셨습니다. 또 16:2절에 보면 유대사회에서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어둡으며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하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은 그들 눈에는 전능자였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그러한 기적을 안고 오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이 책망에 의해서 제자들은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 받게 되면 진리 안에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 세상을 보게 되면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진리와 연결하여 이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록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고 해도 무엇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이고, 무엇이 진리 밖에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진리로 인도 받게 되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예수를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육신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관심의 대상이 있기에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눈에 보이는 의지할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세계로 제자들을 인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역할이 성령보다 못하다거나 한수 아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원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됩니다. 구원의 세계는 완성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예수님으로 완성된 구원의 세계를 누리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 말고 참된 생명이 되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에 매어있는

제자들을 책망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오신 이유고 역할입니다. 그 역할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죄에 대한 책망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대로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신다는 것인데, 이 의미대로라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구원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신임을 아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진노의 자식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지 않은 죄를 책망한다는 것은 자신이 진노의 자식임을 외면하고 살았던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라는 것을 책망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부터 죄에 대해 책망을 받는 신자는 자신이 진노의 자식임을 잊지 않는 자로 살아갑니다.

죄에 대한 책망으로 죄가 드러났을 때 주어지는 것은 죄에 대한 법 적용입니다. 그 법을 적용하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는 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의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이고 진노의 자식인 우리는 이 의로 인해서 죄 없는 자로 여김 받고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의 앞에서 의로 드러날 수 있는 인간의 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에 대해 책망을 받은 신자는 자신에게는 그 어떤 의도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진노의 자식인 우리에게 율법이 적용된다면 주어질 것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를 적용하십니다. 그리고 결과는 죄 사함이고 영생입니다. 이것이 의에 대해 책망을 받은 신자가 누릴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말

합니다. 세상 임금은 당시 유대 사회를 통치하던 빌라도나 헤롯 대왕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탄에게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받은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를 구실로 심판으로 끌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의로 인해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전히 죄에 붙들려 있는 자신을 보면서 구원의 문제로 불안해한다면 그것은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내 죄로 인한 결과에 대해 두려워하는 우리를 책망하면서 죄에서 해방되어 살아가는 십자가의 구원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십자가로 완성된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것을 위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세계가 참된 기쁨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속에 살아가면서도 죄로 인한 심판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죄에 파묻혀 살아가는 진노의 자식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진리의 세계에 붙들어 놓기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 성령이 활동하시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왕성한 활동으로 인해 우리는 매일 같이 책망을 받으면서 십자가의 의의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종교와 신앙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와 신앙을 구분하지 못하면 종교를 신앙으로 착각하고 신앙이 아닌 종교의 길을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 신을 찾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는 사람

의 노력과 열심을 요구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을 추구하고 의지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종교와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 베엘 사람이 부하들을 여호와와 전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보내어서 자신이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오월 중에 울며 근신을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이 물음을 보면 유다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해마다 오월이면 근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신이란 금식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이 오월이 되면 금식을 했던 것은 성전 파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왕하 25:8,9절에 보면 오월 칠일에 바벨론 왕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오월은 성전이 무너진 달로써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며 금식하는 관습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관습이 바벨론에서 계속 되었는데 지금은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성전도 어느 정도 건축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처럼 금식을 계속 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무너짐으로 인해 금식했다면,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상황에서 금식의 이유는 사라진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칠십 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나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5,6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금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우리에게 금식은 신앙의 행위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금식을 했다고 해서 신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한 금식이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신앙이지만 자신을 위한 것이면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종교일 뿐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교회가 이해하는 신앙의 의미는 분명 잘못되어 있습니다. 현대 교회가 생각하는 신앙은 종교적 행위에 대한 열심입니다. 예배와 주일 지키는 열심, 헌금과 기도 열심, 봉사에 대한 열심, 이러한 열심들이 신앙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

수요일설교

숙 7:1-14

신앙과 종교

(8강 4.6일 설교)

면 무엇을 했든, 어떤 열심이 있었든 상관없이 자신을 위해 한 모든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십계명에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고 합니다. 즉 우상은 단순히 어떤 형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는 것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 우상의 본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울며 금식을 한다고 해도 자신을 위해 한 것이라면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든 것과 바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위해 금식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9-12절을 보면 유다가 망한 이유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재판을 진실하게 행하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을 싫어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진노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연약한 자로 출발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기업을 얻고 복을 누렸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지 수백년이 흘렀다고 해도 그들의 현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은혜를 잊음으로서 그들은 약자의 피를 흘리는 죄로 가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자신들의 멸망의 내막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단지 포로 생활을 하는 고통만을 생각했고,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위한 금식입니다.

유다는 현재의 고통만을 생각했을 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던 죄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만약 유다가 약자를 핍박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단지 약자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듣기를 싫어하며 귀를 막았던 죄의 모습임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멸망과 현재의 고통 또한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물을 흘리며 금식을 하고 애통해 하는 것도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던 죄에 대한 애통으로 이어져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 것입니다.

종교적 의미에서의 행동은 행동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얼마나 하면 될까?' 항상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자기 행위를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따라서 의미가 없다고 여겨지는 것은 하지 않게 됩니다. 벤엘 사람이 금식을 해야 하는지 묻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성전도 다시 건축되고 있는데 바벨론에서의 금식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입니다.

유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귀환은 그들의 죄와는 무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다의 금식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었다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것이고 금식을 계속해야 하느냐는 물음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것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라는 의문과 질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신앙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하지 않아야 수준 있는 신앙인이 되는가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신앙에 도움이 안되는 것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외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의 신앙, 즉 종교 생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한 것이냐?' 를 묻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이는 행위라고 해도 자신을 위한 것은 거부하십니다. 그것이 예배든 금식이든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게 되면 자신의 불의함을 보게 됩니다. 누구라도 말씀을 청종하면서 자기 의를 추구한다면 그는 말씀을 청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불의한 자로 나오게 됩니다. 신자가 자기 불의함을 보게 될 때 회개의 마음이 되고 애통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소원을 두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사람에게는 무엇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은혜로 다가오고 은혜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31장

교 독 : 134(부활절)

기 도 : 이영민 장로

찬 송 : 165장

성 경 : 골 3:1-4

말 씬 : 감추어진 부활생명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161장

성례식 : 세례, 성찬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6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300장

기 도 : 송재관 집사

찬 송 : 354장

성 경 : 행 7:54-60

말 씬 : 성령의 사람(성령 16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421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스가라 강해(11강)

■ 교회소식 ■

1.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 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2. 25일부터 26일까지 동부노회 목사 장로 부부수양회가 포항에서 있습니다.



다음주 기도

오전 - 이성희 장로 오후 - 신미정 집사

교회의 교회됨을 위하여③

교회를 윤리와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들이 모인 단체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물론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바른 삶에 있지 않다. 바른 삶이 교회의 본질이라면 세상에 존재하는 봉사의 모임이나 단체와 다를 바가 없다. 교회는 사회봉사 단체가 아니다. 물론 교회는 얼마든지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수 있고, 예배당 건물의 공간을 지역의 유익을 위해 제공할 수도 있으며, 교인들의 재능과 재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러한 일에 힘쓰고 지역 사회에서 좋은 평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을 교회됨으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교회를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사도가 말하는 교회됨에 대해서는 관심이 가지 않으며 이해할 수도 없게 된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로 말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 오히려 의를 실행함으로써 의 있는 자 되려는 것을 부질없는 것으로 여긴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에게 바른 삶이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며 기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으로 평가될 수 없는 특이한 모임인 것이다. 세상이 윤리와 도덕을 바탕으로 자기 의를 쌓고 그것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 곳이라면, 교회는 자신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죄 밖에 없음을 자각하고 고백하는 모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죄의 고백과 함께 용서를 구하면서, 자신의 용서의 세계로 불러 주신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높이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다.

세상은 의인의 세계다. 의인이 높임 받고 사랑받으며 의로운 행위가 자랑거리가 되는 곳이다. 반면에 죄인은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말한다. 항상 세상과는 거꾸로 가는 행동과 말씀을 하신다.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 오셨다면 의인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오직 죄인만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머물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도대체 이런 예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바른 삶을 실천한 의인이 칭찬을 받아야 하고, 상을 받아야 하며 천국을 가야 마땅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다. 예수님은 이러한 의인을 위해 오셔야 하고 그동안 바르게 살려고 힘쓴 것에 대해 칭찬을 하시고 보상을 해주셔야 한다. 그래야 바르게 산 보람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사회에 전혀 보람이 되지 않은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것이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롬 5:20)는 말로 표현을 했다. 죄가 죄로 드러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면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고 의만 넘치는 곳에 은혜는 없다는 것이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인간의 의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이며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곧 은총이며 선물인 것이다.